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단골 레퍼토리로 찾아오는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다음달 20일과 2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

호두까기 인형이 선사하는 따스한 성탄선물

차이콥스키의 환상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대표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광주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다음달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139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제작된 전 2막의 발레 작품이다.

1막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호두까기 왕자와 함께 생쥐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멋진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왕자와 클라라는 눈의 나라에서 눈의 여왕과 눈꽃송이들의 환송을 받으며 과거의 나라로 환상의 여행을 떠난다.

2막에서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는 과거 나라 요정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과 물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스페니쉬 초콜릿, 아라비안 커피, 중국의 차(Tea)를 비롯해 러시아 전통춤 트레파, 프랑스 갈대피리 밀리통까지 다채롭다. 여기에 마더진저와 봉봉들의 춤이 즐거움을 더한다.

호두까기 인형의 시그니처 음악인 '우아한 꽃의 왈츠', 주역 사탕요정과 왕자의 2인무를 정점으로 피날레는 화려하게 장식된다.

극의 말미에서 클라라와 호두까기

연말 분위기 물씬 볼거리 가득 눈의 나라로 떠나는 환상 여행 친숙한 전통 클래식 버전 충실 춤·연주, 관객 눈·귀 사로잡아



왕자는 또 다른 환상 여행을 떠나며 막이 내린다.

올해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캐릭터 춤을 선보인다.

모든 연령층 관객을 위해 마련된 수준 높은 춤의 향연과 풍성한 볼거리를

모미다. 그중에서도 '눈의 나라' 장면이 하이 라이트로 꼽힌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24명의 발레리나가 무대에 올라 찰라로부터 압박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장면을 선사한다.

안무는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전통적인 클래식 발레 버전에 충실하게 재안무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박승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카메라타전남이 협연한다.

클라라 꿈속으로 들어간 듯한 환상적인 연주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1막 쥐와 병정들의 전투 장면, 눈의 나라 눈꽃 요정들의 춤을 비롯해 2막 각 나라 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통통 튀는 매력이 특히 눈길을 끌 예정"이라며 "온 가족을 겨냥한 마더진저·봉봉들의 춤과 함께 아름다운 꽃의 왈츠, 사랑 요정 2인무의 화려한 피날레는 연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997년 초연 이래 27년간 누적 관객 약 7만명을 기록해 온 대표 공연이다. 2021-2023년 공연은 5분 만에 전석 매진 사례를 남기며 연말에 반드시 봐야 할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연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6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성해나 단편소설 '혼모노'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23일 'ACC 도서낭독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9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2시 ACC 극장에서 'ACC 도서낭독공연: 혼모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해나(사진)작가의 단편소설 '혼모노'를 뮤지컬 배우의 노래와 연기로 감상할 수 있다. 또 김길려 음악감독이 중심이 돼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3중주 라이브 연주를 펼쳐 공연 완성도를 높인다.

공연 후에는 성 작가가 관객과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혼모노'는 박수무당 문수가 몸주



도시던 장수 할멈이 신에게게로 옮겨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무속'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신 앞에 선 인간의 믿음과 불신, 진정성을 질문하는 소설이다.

성 작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에 '오즈'가 당선돼 데뷔했다. 이번에 ACC에서 낭독하는 '혼모노'로 '제15회 젊은 작가상', '제2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명진 기자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지전춤 공연 모습

손끝부터 발끝까지 한 획으로...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초청 공연...23일 남도국악원

호남지역만의 고유한 정서가 담긴 맛깔스러운 춤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대극장 전악당에서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초청공연을 연다.

(사)호남산조춤보존회는 호남지역에서 산재한 춤을 발굴해 계승·발전시키는 예술단체다.

'전라감영 교방춤'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무대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산조춤 보유자이자 (사)호남산조춤보존회 이사장인 이길주 명석 매진 사례를 남기며 연말에 반드시 봐야 할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연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6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막을 올린다. 이어 전라지역의 다양한 기교와 역동적인 춤사위가 돋보이는 '전라검무', 절제미 속 교태미와 애절함이 돋보이는 '전라교방인춤', 호남우도농악의 개인 놀이로 구정놀이에서 비롯된 '장구춤'이 차례로 선보여진다.

이어 남도시나위장단에 맞춰 추는 '살풀이춤', 동해안별신굿 5대 세습무인 김석출의 동생 김계향 선생으로부터 전해지는 '지전춤'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춤이자 호남 판소리와 시나위를 바탕으로 한 산조음악에 맞춰 추는 '호남산조춤'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암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